

#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other's Neuroticism, Parenting Stress and  
Young Children's Stress on Problem Behaviors

청주 내덕 어린이집  
교사 송민정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한세영

Cheongju Naedeok Childcare Center

Teacher : Min Jung Song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ae Young Han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her's neuroticism and parenting stress, and young children's stress on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behavior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236 mothers, who had children aged 5-7 in Chungbuk area. Mother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and data analyzed using SPSS program(version 12.0) and AMOS program(version 5.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 mother's neuroticism, parenting stress, and young children's stress directly influenced on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e effect of mother's neuroticism on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as mediated by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young children's stress. Second, mother's parenting stress influenced young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directly, but mother's neuroticism and young children's stress did not. The effect of mother's neuroticism on young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as mediated by parenting stress.

**주제어(Key Words)** : 신경증적 성격특성(neuroticism),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유아 스트레스(young children's stress), 문제 행동(problem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Sae Young han,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410 Seongbong-gu, Heungduk-gu, Cheongju Chungbuk, 361-763, Korea Tel: +82-43-261-2763 Fax: +82-43-261-2793 E-mail: evenhow@chungbuk.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기는 가정, 이웃,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시기이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유아는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행동은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사회적 맥락 내에서 정서가 내려지기 때문에(Kauffman, 1981), 문제행동에 대한 개념 정의 또한 다양하다. 일상생활에서 유아의 정서, 인지, 운동의 기능적 발달행동이 사회의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여러 가지 환경 변인들로 인해 유발된 행동적·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면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본다(김지영, 2002). 다시말해 유아의 문제행동은 유아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심리·사회적 원인에 의해 형성된 복합적인 적응 문제로 여겨지며(성영혜, 1992), 부적절하고 공격적이며 위축된 행동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문화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부적응 상태가 생활영역 전반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에 이상을 초래하는 행동양식을 문제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Achenbach와 Edelbrock(1983)은 문제행동을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였는데, 내면화 문제행동은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정서적인 문제행동으로, 외로움, 우울, 두려움, 위축, 불안 등 자기지향적 행동을 말한다.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슬픔에 잠기거나, 우울하거나, 위축되거나 수줍음이 심하고 공포감이나 환상에 빠지는 행동을 보이기 쉽다.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은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공격성, 과잉행동, 충동성, 비행 등 외부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문제행동이다. 외현화 문제행동을 겪는 아동은 다른 아동을 공격하거나 괴롭혀 그들의 행동이 다른 아동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드러난다(김연, 2007).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Achenbach와 Edelbrock(1983)의 분류에 근거해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간과하여 유아가 성장한 후에 더 큰 사회적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다. 유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학령기나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문제행동과는 달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향이 있어 유아기에 발생된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청소년기의 일탈이나 비행으로 이어지고(Baber, 1994) 가족적응, 직업적응,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조현춘, 조현재, 2002).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허기순, 2004). 이러한 지속성 때문에 유아기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들 중 대표적인 것은 어머니 변인이다. 어머니의 성격, 스트레스 등 개인적 변인이 이에 해당된다. 성격은 한 개인이 외부 세계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개인의 사고나 정서 및 행동반응 등을 포함하는 독특한 행동유형으로, 오랜 시간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주는 특징적인 사고나 감정, 행동양식으로 볼 수 있다(김정숙, 2008). 최근 많은 성격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격이 다섯가지 요인인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신경증은 많은 성격심리학자들이 대인관계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ysenck(1967)는 신경증적 성향을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기분변화가 심하며, 쉽게 불안하고 우울하며, 지나치게 근심걱정을 하는 것으로,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동일한 환경에서도 스트레스를 더 크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아동양육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신경증적 성향의 어머니는 아동양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더 크게 지각하여 유아를 지나치게 걱정을 하며 유아에게 간섭을 많이 해 유아들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어머니의 신경증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직접적인 상관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은 양육 스트레스 뿐 아니라 유아의 문제행동이나 유아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가진다(Angold & Costello, 1995). 신경증적인 성향의 어머니는 자신에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녀에 대해 정서적 반응이 부족하고 부정적 평가를 많이 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양화진, 2005).

유아의 문제행동 중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적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같은 개인내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어머니가 높은 신경증적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의 우울, 불안과 같은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김연, 2007; 허기순, 2004). Adler는 어머니와 유아 사이의 신경증적 상호작용은 어머니와 유아들을 과보호로 맺어지게 하여 정신적 병리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신경증적 성향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유아들을 양육하고 있어 유아들이 어머니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김춘경, 재인용, 2000). Downey와 Coyne(1990) 또한 신경질적 성향이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정신병 발병의 가능성이 높고 또래와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하며 사회적 유능성이 저하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 영역에서 문제를 나타낸다고 밝혔고 또 다른 연구에

서는 어머니가 신경증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격성과 같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Davies & Cummings, 1994).

또한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높아지면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되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동일한 조건의 양육부담이 어머니에게 주어진다면 신경증적 성격특성을 가진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 Langford와 Glendon(2002)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신경증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신경증이 높을수록, 즉 불안이 높고 쉽게 흥분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부정적인 정서와 더 관련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안영희, 2008) 유아에게로 전이되어 유아의 스트레스가 높아질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빈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현정, 1997). 즉 어머니가 신경증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면 보통의 어머니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 이러한 부모는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누적시키면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아 스트레스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이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통해 유아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발달과 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성격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발생된다(Crnic & Booth, 1991).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역할수행능력과 유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이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져 자녀양육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Crnic & Greenberg, 1990). 특히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보호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인해 아버지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박해미, 1994). Abidin(1990)과 Belsky(1984)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어머니 자신의 적대감이나 공격성이 증가되고 이러한 특성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Snyder(1991)는 부모의 부정적인 기분이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게 미치

는 영향력을 단적으로 설명하였다(허은경, 2004).

국외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양육태도는 가족과의 상호작용 패턴을 결정짓고 아동의 불안증상과 같은 행동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으며(Nancy & Kevin, 2001),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시간이 갈수록 아동의 행동문제를 악화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ker, et al., 2003). 또한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Anthony, et al., 2005). 즉,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이유진, 박경, 2005).

한편, 이와 같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과정에서 유아에게 표출되면 유아도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유아는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분출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될 수 있다. 이현정(1997)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의 빈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스트레스는 성인에게만 해당당스러개념이 아니며 유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Henninger, 1994). Band와 Weize(1988)는 유아의 스트레스를 자극의 강도에 따라 중요한 생활사건 스트레스(major life event)와 일상적 스트레스(everyday stress or daily hassles)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중요한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 질병, 학대 등이 해당된다. 반면 일상적 스트레스는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 슬펐던 일, 놀랐던 일 등 사소하지만 부담스러운 일들로 유아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을 의미한다. 유아가 느끼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중요한 생활사건 스트레스보다 자극의 강도는 약할 수 있지만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누적되면 유아의 발달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는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경험이 미숙하여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더욱 위험하다(홍강의,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유아의 스트레스에 접근하고자 한다.

유아의 스트레스는 유아의 내면적·외면적 부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조순이, 2003)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유아에게 좌절감, 분노, 공포, 우울, 소외감, 불안감, 거부감, 압박감, 긴장감 등의 문제를 느끼게 한다(엄현경, 1998). 또한 유아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유아의 스트레스가 과중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개인의 안녕이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부적응 상태가 유발되어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한미현, 1996).

유아들이 직면하는 스트레스의 상당한 부분이 성인들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어머니의 특성과 생활 스트레스,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서 오는 어려운 점들이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혜숙, 1998)이 있어 부모의 스트레스가 자녀의 스트레스를 통하여 유아의 내면적·외면적 부적응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조순이, 2003)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의 상관 뿐 아니라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및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아의 스트레스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함에 비해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직접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직접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연구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유아의 스트레스와의 영향관계를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양육 스트레스의 유의미한 관계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 스트레스의 유의미한 관계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유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스트레스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스트레스를 통하여 유아의 내면적·외면적 부적응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순이(2003)의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 해준다.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간의 관련성을 논하고 있지만 각 변인들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볼 뿐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그 경로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워진 이론적 모델을 통하여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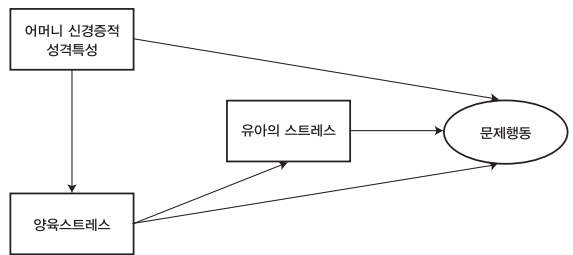
연구문제 1. 일반적 배경에 따라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

성,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이론적 모델

## Ⅱ.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청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에 소재하고 있는 7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3세~만 5세 유아의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는 유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내져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고 그 질문지를 유아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다시 수거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완성된 질문지로 2009년 9월 7일~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45부(81.6%)가 회수되었고,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 9부를 제외한 236부를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은 Eysenck와 Eysenck(1975)이 제작한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PQ)를 근거로 측정하였다. EPQ는 Eysenck와 이현수(1985)가 한국인에 맞게 표준화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일부 수정한 박성연과 전현진(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EPQ는 강인성 혹은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내향성, 정서성 혹은 신경증적 경향성, 그리고 허위성 혹은 사회적 욕망성의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

지 요인 중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신경증적 성격특성(안영희, 2008)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문항에는 “나는 자신이 신경질적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은 17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9이다.

2)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Crinic과 Greenberg(1990)가 개발한 PDH (Parenting Daily Hassles)의 20문항을 안지영(2000)이 18문항으로 수정 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문항에는 “개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7이다.

3) 유아의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엄현경(1998)이 우리나라 3~6세 유아에게 맞도록 제작한 한국형 유아 일상스트레스 검사지(KPDSS)를 사용하였고,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자녀 때문에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유아의 스트레스에는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실 등의 스트레스 상황이 포함 되어 있다. 유아의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로 이루어진 문항에는 “엄마 아빠께 야단맞을 때”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유아의 스트레스는 총 20문항이며 ‘전혀 느끼지 않는다’의 1점에서 ‘크게 느낀다’의 4점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0이다.

4)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은 Achenbach와 Edelbrock(1984)이 개발하고 이혜련, 오경자,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유아·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인 K-CBCL을 송강숙(2006)이 학령전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활용한 것을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이 있어서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요인 부하량이 낮은 1문항을 제외한 16문항으로 내면화 문제행동을 측정하였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제외한 문항 없이 14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문항에는 “우리 아이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슬프고 우울해 하는 것 같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문항에는 “우리 아이는 친구나 형제를 괴롭히거나 잔인하게 굴 때가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각각 .87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12.0과 AMOS 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조사자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질문지의 타당도와 문항 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F*-test,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제안된

〈표 1〉 일반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차이

독립변수(N)	종속변수	어머니 신경증적 성격 <i>M(SD)</i>	양육스트레스 <i>M(SD)</i>	유아의 스트레스 <i>M(SD)</i>	내면화 문제행동 <i>M(SD)</i>	외현화 문제행동 <i>M(SD)</i>
유아성	남아(126)	2.32(.43)	1.98(.45)	3.07(.41)	1.70(.42)	1.75(.43)
	여아(110)	2.32(.46)	1.94(.41)	3.04(.44)	1.64(.35)	1.61(.38)
	<i>t</i>	.06	.72	.57	1.14	2.67**
유아연령	만3세(78)	2.35(.42)	2.10(.46)b	3.12(.38)	1.72(.41)	1.76(.41)
	만4세(79)	2.30(.49)	1.95(.41)ab	3.08(.42)	1.62(.37)	1.65(.43)
	만5세(79)	2.32(.42)	1.84(.40)a	2.96(.46)	1.67(.40)	1.66(.41)
	<i>F</i>	.18	7.49**	3.17*	1.18	1.51
모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108)	2.31(.41)	1.87(.45)	2.98(.44)	1.65(.39)	1.61(.37)
	대학교 졸업 이상(128)	2.33(.47)	2.04(.41)	3.11(.40)	1.69(.40)	1.75(.44)
	<i>t</i>	-.38	-3.04**	-2.50*	-.91	-2.58*

\**p* < .05, \*\**p* < .01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5.0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유아는 남아가 53.4%, 여아가 46.6%이고, 연령은 만 3세가 33.1%, 만 4세가 33.5%, 만5세가 33.5%였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49.6%, 둘째가 43.6%, 셋째이상인 6.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미만이 52.5%, 35세 이상이 47.5%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연령은 35세 미만이 28.0%, 35세 이상이 72.0%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45.8%, 대학 졸업이상인 54.2%이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36.0%, 대학 졸업이상인 64.0%였다. 가족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23.3%, 200-300만원이 40.3%, 300-400만원이 21.2%, 400만원 이상은 15.3%였으며, 종교는 무교가 50.0%, 기독교/천주교는 25.8%, 불교는 24.2%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4.3%로 가장 많았으며 대가족은 10.2%, 한부모 가정은 5.5%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62.7%, 취업주부는 37.3%이며,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및 공무원이 39.4%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26.3%, 서비스 및 생산직 10.6%, 전문직 8.1%, 일반사무직 5.9%, 기타5.1%, 고위관리직 3.0%, 단순노동 1.3%, 무직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일반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차이

일반적 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유아의 성에 따라서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t = 2.67,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 유아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 $F = 7.49, p < .01$ )는 만 3세 유아의 어머니가 만 5세 유아의 어머니 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스트레스 또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 하였다( $F = 3.17, p < .05$ ).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t = -3.04, p < .01$ ), 유아의 스트레스( $t = -2.50, p < .05$ ),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t = -2.58, p < .05$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에 양육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유아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크며,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유아의 내면화 문

<표 2>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변인	어머니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어머니 신경증적 성격특성	1.00				
양육 스트레스	.37**	1.00			
유아의 스트레스	.17*	.29**	1.00		
내면화 문제행동	.39**	.37**	.24**	1.00	
외현화 문제행동	.28**	.53**	.18**	.56**	1.00
평균	2.32	1.96	3.05	1.67	1.69
표준편차	.44	.44	.43	.39	.41

\* $p < .05$ , \*\*  $p < .01$

제행동은 유아 성, 유아 연령,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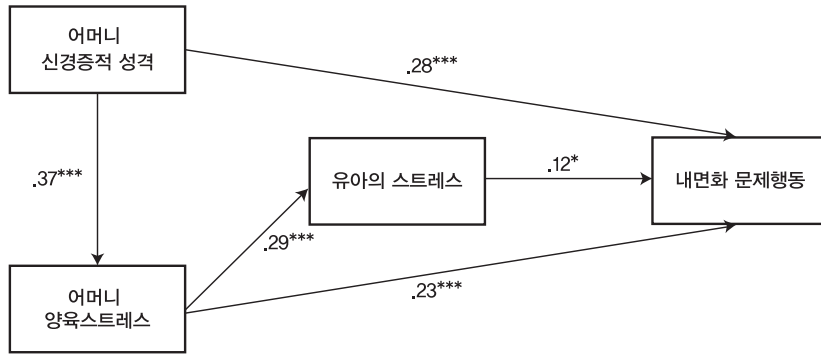
#### 3.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계수는 .17에서 .56 사이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인 VIF값이 모두 3보다 작게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의 이론적 연구모델을 기초로 자료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chi^2 = 1.15 (p) .05, df = 1, GFI = .998, AGFI = .976, NFI = .990, CFI = .999$ 로 모두 0.9 이상이며  $RMSEA = .025$ 이므로 자료가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모델은 <그림 2>와 같으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7이었고,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 $p < .05$ , \*\*\*  $p < .001$

〈그림 2〉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모델

〈표 3〉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간접효과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종속변인
어머니 신경증적 성격특성	.37	.	.37	양육 스트레스
	.	.11	.11	유아의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28	.10	.38	내면화 문제행동
	.29	.	.29	유아의 스트레스
유아 스트레스	.23	.03	.27	내면화 문제행동
	.12	.	.12	내면화 문제행동

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1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8,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스트레스에 .29,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23의 직접효과를 미치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3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의 스트레스는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12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는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고,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총 효과를 통해 비교해 보면,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는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총효과 .38), 양육 스트레스(총

효과 .27), 유아의 스트레스(총효과 .12) 순서로 영향력이 나타난다. 따라서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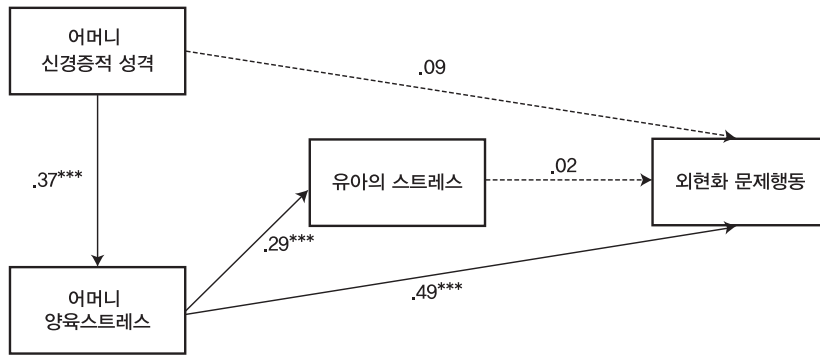
2)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chi^2 = 1.15 (p > .05, df = 1)$ ,  $GFI = .998$ ,  $AGFI = .976$ ,  $NFI = .992$ ,  $CFI = .999$ 로 모두 0.9이상이며  $RMSEA = .025$ 이므로 자료가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모델은 〈그림 3〉과 같으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7이었고,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1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18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스트레스에 .29,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49의 직접효과를 미치며, 유아의 스트레스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인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은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스트레스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  $p < .001$

〈그림 3〉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모델

〈표 4〉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간접효과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중속변인
어머니 신경증적 성격특성	.37	.	.37	양육 스트레스
	.	.11	.11	유아의 스트레스
	.	.18	.18	외현화 문제행동
양육 스트레스	.29	.	.29	유아의 스트레스
	.49	.	.49	외현화 문제행동
유아 스트레스	.	.	.	외현화 문제행동

미치는 직접효과를 비교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내면화 문제행동(.23)보다 외현화 문제행동(.49)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총 효과를 통해 비교해 보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총효과 .49), 신경증적 성격특성(총효과 .18) 순서로 영향력이 나타난다. 따라서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임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연구모형을 세우고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배경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 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에 따라 내면화 문제행동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의 빈도가 높고 여아는 내면적 문제행동의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이미자, 2000)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성에 따른 외현화 문제행동의 차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활동수준, 높은 반응강도, 높은 주의 전환성, 낮은 적응성 등의 기질적인 영향(강혜경, 2003)을 더 많이 받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현화 문제행동의 지도에 있어서 남아의 경우에는 기질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반면 내면화 문제행동의 성차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더 많은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만 3세 유아의 어머니가 만 5세 유아의 어머니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엄선희, 1999; 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 스트레스의 측정도구가 어머니의 개인생활 및 자아가 줄어들고 아이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해서 힘이 든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적고 어머니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유아의 스트레스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유아가 어릴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흐름을 보였다. 이는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선행연구(윤유경, 1990; 이정은, 1992; 홍희란, 2002)와 다른 결과는 최근 어린이집과 같은 가정 이외의 보육시설에 처음 입소하는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어린 나이에 또래와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하고 세상에 대한 경험을 시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서 어머니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에 양육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유아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크며,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 자녀도 자신만큼 또는 자신보다 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키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크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유아가 그렇지 못한 어머니의 유아보다 다소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고영미, 1996)에 의해 지지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자신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에 부응하여 자녀의 인지적 성취와 발달에 대한 기대와 요구, 조바심과 걱정이 많아지는 어머니로 인해 유아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 것은 어머니의 높은 기대로 인해 유아가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게 되고, 어머니는 유아의 부정적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유아의 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행동이라는 형태로 분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유아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김연, 2007; 조순이, 2003; 허기순, 2004; Anthony, et al., 2005)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하는 유아는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기분변화가 심하며, 쉽게 불안해하거나 우울하고, 지나치게 근심걱정을 하는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향을 모델로 삼기 때문에 내면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는 각각이 가진 부정적 영향력만으로도 내면화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은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고,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남소현, 김영희, 2000; Anthony, et al., 2005,

Langford & Glendon, 2002). 즉,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생에는 어머니 변인인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양육 스트레스가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동시에 유아의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다. 우울하고 불안하며 신경증적인 성향의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면 부모와 자녀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유아의 스트레스도 높아져서 유아의 내면적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는 방어기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아도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긍정적으로 감정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유아기부터 익혀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유아의 스트레스와 함께 고려하여 치료하거나 중재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과 유아의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Abidin, 1990; Belsky, 1984; Patterson, 1980). 이는 눈에 쉽게 드러나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유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없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에게 외현화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어머니 자신의 자녀양육 환경을 점검해 보고 스트레스 원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유아의 스트레스가 내면화 문제행동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아의 스트레스가 내면화 문제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아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내면적·외면적 부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조순이(200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유아에게 일어나는 내면화 문제행동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의해 생겨나므로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이 제거된다면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반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스트레스라는 내면적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요인으로부터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평과 지도에 있어 양육자의 태도가 함께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이고, 외현화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볼 때 연령이 어릴수록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

지므로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가정환경인 어머니 변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생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어머니 변인이나 유아변인 중 특정한 하나의 변인과의 단순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변인들 간의 직접·간접 경로를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과 유아 개인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탐색하였고,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스트레스를 하나의 변인으로 살펴봤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스트레스를 하위 변인으로 세분화 하고 문제행동도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각 변인이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에 한정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신경증적 성격특성,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아버지의 영향과 어머니의 영향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강혜경(2003). 유아의 성별 및 연령과 어머니의 훈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영미(1996).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 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 연(2007). 유아 기질 및 심리적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숙(2008). 어머니의 성격 유형과 유아의 창의적 성향 및 창의적 사고와의 관계.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영(2002). 교사가 인식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문제유형별 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춘경(2000). 문학의 치료적 기능을 이용한 놀이치료. **놀이**

**치료연구**, 4(2), 3-27.  
 남소현, 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적응행동: 성별 중심. **대한가정학회지**, 38(10), 199-213.  
 박성연, 전현진(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70.  
 박해미(1994). 자녀 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영혜(1992).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강숙(2006). 유치원 운영시간, 부모의 학습관여, 유아의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영희(2008).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성격특성 및 부모의 양육일치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지영(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화진(2005).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부부갈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선희(1999).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현경(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우영, 최진아, 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윤유경(1990).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 양상의 발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자(2000). 유아의 문제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유진, 박경(2005).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심리치료**, 5(2), 39-57.  
 이정은(1992).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일상적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정(1997).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해숙(1998). 유아의 기질 및 배경 변인과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순이(2003). 부모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부모가 지각한 유아의 스트레스 및 부적응 행동.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현, 조현재(200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의 효과에

-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2), 323-338.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 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기순(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부관계,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은경(2004).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일상생활 스트레스, 배우자 및 사회적 지지가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강의(1998). 어린이의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 및 대처 방안. *삼성복지재단 제 6회 학술대회 자료집*, 147-174.
- 홍희란(2002).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Charlottesville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Press.
- Angold, A., & Costello, E. S.(1995). Developmental Epidemiology. *Epidemiologic Reviews*, 17, 74-82.
-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 Baber, B. K.(1994). Effect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cents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64-974.
- Baker, B. L., McIntyre, L. L., Blacher, J., Crnic, K., Edelbrock, C., & Low, C.(2003). Pre-school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 : behaviour problems and parenting stress over tim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7, 217-230.
- Band, E. B., & Weize. R.(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rnic, K. A., & Booth, C. L.(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ummings, E. M., & Davies, P.(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ysenck, H. J.(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Springfield, Illinois: Thomas.
- Henniger, M. L.(1994). Play : Antidote for childhood stres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05, 7-12.
- Kauffman, J. M.(1981). *Characteristics of children(behavior disorders)*. Columbus: A Bell & Howell Company, 14-22.
- Langford, C., & Glendon, A. I.(2002). Effects of neuroticism, extraversion, circadian type and age on reported driver stress. *Work and Stress*, 16(4), 316-334.
- Nancy, E. H., & Kevin, R. B.(2001).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environment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ong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mother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4), 954-966.
- Patterson, G. R.(1980). Mothers : The unacknowledged victim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5(5), 1-55.
- Snyder, J.(1991). Disciplining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maternal stress and mood on child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 263-276.

접 수 일 : 2011년 2월 28일

심사시작일 : 2011년 3월 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5월 26일